

## 설날

한국에는, 옛부터 행해지고 있는 전통적인 행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설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행사의 하나입니다.

다른나라에서, 설날이라는 것은 보통, 1월1일을 의미합니다만, 한국에서의 설날은 음력으로서의 설날과, 양력으로서의 설날이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설날을 지낼 경우, 가정 그 나름대로의 관습에 따라 음력에 지내는 경우도 있고, 양력에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에서 설날에는, 쌀로 막대기모양같은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떡을 얇고 엷비슷하게 썰어서, 그것으로 국을 끓입니다. 그 국은 떡국이라는 것입니다. 얇고 엷비슷하게 썰어서 타원형이 된 그 떡은, 돈과 나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러한 떡이 들어있는 떡국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돈을 잔뜩 벌수있도록 되고, 오래 살수있도록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떡국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음식이 된 것 같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는 것과, 동시에, 행해지는 일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세배하러 가서, 1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기원하기도 하고, 새해 인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해인사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한국의 전통적인 행사가 참 마음에 듭니다. 다른 사람의 무사와 행복을 빌어줄 수 있고, 그다지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친척들도 만날수있고, 설날이 무척 좋습니다. 물론, 떡국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설날을 좋아하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요즘, 전통적인 것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만큼 전통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확립시킨 뒤에, 새로운 것을 더한다면, 더욱 좋은 것을 이룰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것을 소중히 하는 것이야말로, 새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요.